東原 戴震(1724-1777)과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청나라 중기와 조선 후기에 생활하였던 철학자들이다. 두 철학자의 출생시점은 한 세대 이상의 격차가 있지만 18 세기에서 19 세기에 걸친 시기는 중국과 조선 두 나라에 있어 다 같이 시대적 전환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처해 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알맞게 되면서 그때까지 당연시되어 오고 있던 기존의 삶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세계관을 전지하게 검토하고 달라진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에 대한 지적인 탐색을 하지 않

戴震的气学与丁若镛实学的近代性研究

DAIZHEN DE QIXUE YU DINGRUOYONG SHIXUE DE JINDAIXING YANJIU

◆韩 英 著

世界图书出版公司

戴震的气学与丁若镛实学的近代性研究

DAIZHEN DE QIXUE YU DINGRUOYONG SHIXUE DE JINDAIXING YANJIU

◆韩 英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广州·上海·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戴震的气学与丁若镛实学的近代性研究:朝鲜文/韩英著.
—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2007.5
ISBN 978-7-5062-8683-1

Ⅰ.戴… Ⅱ.韩… Ⅲ.①戴震(1723~1777)-气-研究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丁若镛(1762-1836)-实学
-研究-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B249.65 B31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7)第 079016 号

戴震的气学与丁若镛实学的近代性研究

作　　者:	韩　英
责任编辑:	韩美玲　安太顺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 北京朝内大街 137 号　邮编: 100010　电话: 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北京世图印刷厂
开　　本:	787×1092　1/16
印　　张:	20
字　　数:	300 千
版　　次:	2007 年 5 月第 1 版　2007 年 5 月第 1 次印刷
ISBN	978-7-5062-8683-1/H·972　定价: 36.00 元

版权所有　翻印必究

지은이의 말

필자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대련대학에 안착한지도 벌써 6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보충 수개하여 오늘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필자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동안 유물주의로 일관된 사유로부터 유물주의나 유심주의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때 다산 정약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 한국철학사 강의를 들으면서 부터였다. 정약용은 한국철학사에서도 보기 드문 경학, 사학, 경세학, 지리학, 문학, 기계학, 천문학 등 지식을 축적한 박학다식한 철학자였으며, 기성학문 즉 주자학을 용기 있게 비판할 수 있었던 드문 철학자이기도 하다. 또한 서학의 영향하에 유학을 새롭게 해석한 철학자로서 중세기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타파하고 근대화를 지향하였던 실학자 등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그의 사유에는 어딘가 불일치한 복합적인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필자가 국내에서 『조선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정약용을 일관되게 유물주의 철학자로 평가하던 관점들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었다. 그리하여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학위논문 주제로 생각하고 있던 중 지도교수이신 김형효 교수님께서 자네는 앞으로 주로 중국학계에서 활동하게 됨으로 중국철학자와

의 비교연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사실 정약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도 벅찬 필자로서는 두 철학자의 비교철학적인 연구는 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때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중국철학사에서 청나라 대진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것은 비교철학은 시대와 사회는 다르더라도 같은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또는 유사한 시각을 가진 두 철학자들의 철학사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진과 정약용은 생존시기가 차이가 나고 중국과 조선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였던 철학자들이다. 또한 중국 사상사에 있어서 청나라의 철학은 종래의 전통사상을 종합 정리하여 비판한 시기로 평가되는데 대진이 바로 그 비판의 선두에 서 있었다. 대진도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천문학, 수학, 지리학, 聲韻學, 철학 등 각 방면에 걸쳐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업적을 남긴 백과전서파 철학자이다. 그의 이러한 탁월한 연구와 후세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생동안 6 차례 과거에서 모두 낙방하고 53 세 나이에 한림원에서 庶吉士로 역임하다 과로로 5 년 만에 사망한 비운의 철학자였다.

대진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 철학적인 저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孟子字義疏證』,『原善』,『序言』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孟子字義疏證』이라 할 것이다.『孟子字義疏證』은『孟子』에 나오는 理, 氣 등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유가 철학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정립하려 한 중요한 철학저작으로서 明淸 시대의 "氣의 철학"의 완성을 이루어낸 기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념비적 저작이기도 하다. 정약용의『孟子要義』역시 그의 性命論, 유가철학용어의 개념, 수양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저작으로서 實踐, 實用, 實證, 依實의 방법을 사용하여『孟子』를 해석한 철학저작이었다. 그런데『孟子要義』는『孟子』의 全釋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해석한 것으로 주로 天, 天命, 神形妙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사상적 중핵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철학자가 생활하였던 시대적 특점과 그들의 비판적 철학정신 등을 감안하여『孟子字義疏證』과『孟子要義』라는 두 철학저작을 중심으로 그들의 철학사상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다는 목적에서 논문을 준비하였다. 시대적배경과 그들이 종래의 전통철학 및 주자학을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한 유학의 理, 氣 개념과 이러한 철학사상 속에서 움트는 실학적 단초를 읽어내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논문의 기틀이 막 형성되었을 때 김형효 교수님께서 보시더니, 이러한 연구는 두 철학자의 철학사상의 단순한 횡적 비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들이 주자학과 전통사상을 비판하고 확립하려고 하였던 것이 과연 어떤 철학사상 체계였는지, 그들의 철학사상을 오늘날 다시 읽었을 때 과연 어떤 시대적 의의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하셨다. 지금은 10 년 전 일이어서 분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 더욱 많은 지당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고민하고도 철학자의 원전을 3 번이나 독해하고 기존의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였던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진과 정약용은 분명 변화하는 시대에 생활하였던 철학자들이고, 그들은 몸으로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인문고전을 그 시대의 정신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기존의 낡은 유학의 관념적인 것을 비판하고 실용적인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실학자로서 손색이 없다. 물론 그들의 실학적 사상이 근대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그들이 추구하였던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와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하는 점은 아직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병폐를 진단하고 반성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차원의 근대성을 모색해 나갔다는 점에서 볼 때 대진과 정약용의 철학사상은 분명 同異點이 존재하며 모두 큰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철학자의 철학사상을 근대성이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보려는 재시도를 하였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 등 학계에서 대진과 정약용을 단독으로 연구한 성과는 많았지만 두 철학자를 그것도 근대성이란 시각에서 비교연구한 성과는 많지 않았다. 특히 정약용의 사상은 방대하여 그 철학적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고, 대진도 마찬가지로 읽을수록 난해한 철학자였다. 김형효 교수님의 지도와 계발, 그리고 원전을 정확하게 독해하는데 충실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대략 윤곽을 잡고 연구를 정리하여 논문으

로 완성하였다. 그러나 근대성의 문제, 즉 대진과 정약용의 철학사상과 근대성의 관계 등에서 아직도 해석이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앞으로 분발하여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아마 대진과 정약용의 철학사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미숙한 필자가 평생 공부해야할 미완의 과제일 것이다.

대진과 정약용은 그 시대에서나 오늘날 돌아보았을 때에도 훌륭한 철학자들이고 그 철학 사상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들의 철학하는 정신, 학문하는 자세, 인간되기에 부끄럼 없는 점 또한 더욱 오늘날 학문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배워야 할 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책을 출판하면서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의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物慾 등 온갖 욕망이 팽창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과연 대진과 정약용의 철학을 공부하고 그들의 철학하는 정신과 자세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스스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책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 단계 연구의 정리와 다음 단계 더욱 깊이 있는 연구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감히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유학생활에서 항상 격려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교수님들, 학우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처음에는 한국어도 잘 하지 못하여 대화조차 어려웠던 저를 8년이란 긴 시간동안 인내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형효 교수님, 공부할 때나 지금까지 늘 관심과 도

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승구 교수님,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 11시에 사모님과 같이 수정한 논문원고를 집 앞까지 가져다 주셨던 최진덕 교수님, 그리고 늘 면학을 격려해 주셨던 정해창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늘 함께 동고동락하여 큰 힘이 되어 준 유병호 박사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받아 주신 출판사와 편집 교정에 힘써 주신 직원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7 년 5 월
비사산성 기슭에서
한영 삼가 적음

들어가는 말

철학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見分의 學이다. 동서고금의 철학사상을 살펴보면 "聖潔적－宗教적 세상보기"와 "世俗적－所有적 세상보기"가 중세와 근대를 지배해 왔다. 서양의 경우 "성결적－종교적 세상보기"의 철학사상이 인류의 고대사회에 출현하여 장구한 중세기를 거치면서 주류를 이루어 왔고, 중세기가 붕괴되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성결적－종교적 세상보기"의 "낭만주의적인 꿈꾸는 영혼의 철학"에서 깨어나 인간의 동물적 생리를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세속적－소유적 세상보기"로서의 근대성의 사유로 전환하게 된다①. 동양의 경우 性理중심의 성리학에서 天이나 理는 서양철학의 神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內聖外王'의 "向外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도② 결국 내

---

① 김형효는 그의 논문「철학과 세상보기」(『우리말 철학사전』, 지식산업사, pp. 387－454)에서 기원전 5 세기를 전후한 인간의 지혜의 기초적인 출현들을 묶어 대개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 "성결주의적인 세상보기"와 合一적 진리이다. 둘째, "세속주의적인 세상보기"와 장악적 진리이다. 셋째, "非聖非俗적인 세상보기"와 초탈적 진리이다.

② 유학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疑似하느님의 존재가 나의 마음속에 내림해 있다고 보아 성인 되기에 모든 생애를 다 건다. 이러한 현상을 朴鍾鴻의 개념에 따라 지칭하면 "向內性"의 문화라 할 수 있다.

마음을 하늘의 영원한 진리인 天道나 天性에로 '合一'시키거나 '歸一'시키는 그런 낭만적 一体에로의 욕망이었다. 그러나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근대화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종교와 도덕의 시대는 가고 경제와 과학의 시대가 열렸으며 사회는 경제적인 생산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철학의 주된 관심도 형이상학적 관여에서 지능적 이성으로 바뀌고 理의 의미는 성리적 主理에서 이성적 主理에로의 세속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 즉 서양에서의 신학적 사유가 세속화 되었듯이 동양에서도 유학적 사유가 세속화되었다.

東原 戴震(1724－1777)과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청나라 중기와 조선 후기에 생활하였던 철학자들이다. 두 철학자의 출생시점은 한 세대 이상의 격차가 있지만 18 세기에서 19 세기에 걸친 시기는 중국과 조선 두 나라에 있어 다 같이 시대적 전환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처해 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임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당연시 되어 오고 있던 기존의 삶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세계관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달라진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에 대한 지적인 탐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기존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하는 작업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은 포섭하고 이미 시대적 한계성으로 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었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다. 대진과 정약용은 비슷한 사회적 동요와 변화의 시대를 살았기에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적인 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실로 그들의 사상은 근대성의 맹아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대적인 학문을 우리는 실학이라 일컫는다.

중국과 조선의 사상계에서는 근대화의 여명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학풍으로서의 실학이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된다. 대진과 정약용은 고증학적(실증주의) 방법으로 그 전시기의 "성결적-종교적" 세상보기에 대한 반성과 비판①을 거쳐 유학의 세속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세상보기의 견분을 본격적으로 전개시켰다는 의미에서 실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근대성의 맹아를 배태하고 있었던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명 말·청 초에 왕조가 교체된다. 漢族은 명 말의 극심한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이민족인 만주족에게 그들의 왕조를 헌납하고 청조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는 '征服王朝'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정치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상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였다. 청나라 초의 사상은 명 말의 사상에 대한 반성과 반동에서 시작하여 이 같은 부정적인 관심을 송명理學 전체

---

① 정순우는 "茶山이 성리학적 구도를 부수고자 한 것은, 성리학적 사유 혹은 이론체계를 일종의 중세적인 닫힌 철학의 형식으로 읽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다산은 이런 닫힌 형태의 철학으로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리라는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茶山學』, 제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1, p.228 참조.)

로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따라서 양명학 뿐만 아니라 주자학까지 포함된 송명이학 전반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실 명 말·청초에 송명이학은 학문으로서 이미 난숙기의 퇴폐상을 나타내면서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상적 지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 사상계에서는 송명이학에서 벗어나 古經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고주의이다. 복고주의는 유교경전에로 돌아가 거기에서 실사구시 태도로 옛 성인이 말했던 진리를 다시 찾으려 하는 학문적 입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때의 학문연구 방법이 곧 考證學이다. 고증학은 유교경전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방법으로서 訓詁學과 더불어 유교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청나라 초기로부터 중기 이후까지 학계를 풍미하였다. 대진은 청나라 고증학의 대표자로서 그의 철학사상도 고증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程朱學은 고려 후기에 한반도에 도입된 후 조선 중기에 와서 퇴계·율곡 등 석학에 의하여 대성되었고, 그 후 조선조의 지배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적이 없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대두할 때에도 정주학은 여전히 생기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회도 倭亂과 胡亂을 겪고 18세기에 이르러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匡政策으로 신학풍이 갈구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청조로부터 실학이라는 새 학풍과 서학을 폭 넓게 수용하게 된다. 진보적 지식인들은 실학과 서학의 영향으로 종래의 정주학적 세계관은 그 근본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게 되며 정주학의 근본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대적 모순과 아픔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새로운 철학체계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상술한 역사적 변동과 사상적 맥락 속에서 정약용은 서학과 만나게 되며『天主實義』등을 통하여 서양중세의 토마스적 세계관과 접하게 된다. 서학의 영향은 그에게 있어서 지대한 것으로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공고히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실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向外적'인 行事의 철학사상①을 정립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사회적 변동과 사상적 전환의 시기에 대진과 정약용은 상호간에 아무런 학문적인 교류도 없었지만 비슷한 시대적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예전의 학문과 사상을 비판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잉태하였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즉 비슷한 사회적 동란과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철학적 문제의식에 있어서 두 사람의 철학사상은 동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이미 시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중세적인 정주학을 비판하고 근대적인 사유에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적 사유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노정하고 있는바 이 차이점은 각자의 철학사상의 특성

---

① '向外的'이란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내 마음속에서 성인과의 '合一'을 지향하는 '向外性'의 문화와 다르다. 서양의 초월적인 神은 인간이 그 명령만 준수하면 종교적 귀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神性을 모실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완전무결한 성인이 되려고 불가능한 시도를 끝없이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신학적 이상은 유학적 이상보다 실천하기 훨씬 수월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그런 여유는 자연히 인간의 의지를 '향외적'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저서에서 사용하는 '향내적'이란 개념은 인간의 마음속에서의 수행의 의미로, '향외적'이란 개념은 行事로서의 의미로 사용한다.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진은 송유의 절대적이고 궁극적 존재원리로서의 理를 철저히 비판하고 氣一元論을 정립하였다. 그의 기일원론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을 바탕으로 도덕이 이루어진다는 도덕론을 펼치는 자연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약용의 철학은 성리학의 '天人合一'을 비판하고 인간의 자연 지배와 인간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휴머니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서학과의 접촉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대진은 서양의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그의 지성주의적 사유를 폭 넓게 전개해 나갔고, 정약용은 표면적으로는 유학적 실학자였지만 자연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상제라는 종교·신학적인 사상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서학은 그의 우주론은 물론이고 인간관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상제와의 '合一'을 지향하는 神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은 인격적인 상제로부터 유일하게 靈性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상제를 대리하여 다른 만물을 관장하고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중심주의적이다. 대진과 정약용은 공동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주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철학사상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상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철학적 사유의 과정은 각각 달랐다. 그렇다면 그들의 철학사상에는 어떤 同異點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철학사상을 분석하고 근대성과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해답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철학사상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업적을 돌아보면 그 연구방법과 연구시각이 다양하고 성과도 풍부하지만 한국사

상사라는 범위 안에서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중국과 일본의 동시대 철학자들과의 횡적인 비교연구는 미진하여 연구성과도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① 청나라 중기의 고증학자이자 철학자인 대진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더욱이 이 두 사상가의 철학사상의 특성을 밝혀주고 근대성이란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를 시도한 논문은 한두 편에 지나지 않으며, 이 논문들도 단지 연구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을 뿐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비교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② 일본학계에서는 대진과 德川時代의 유학자 伊藤仁齊(1627~1705)와의 비교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고③, 중국학계에서도 근래

---

① 琴章泰,「伊藤仁齊의 古學과 茶山의 實學」,『宗教와 文化』,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1998.

南明鎭,「淸初學術與韓儒丁茶山實學思想」, 중화민국 문화대 박사논문, 중화민국 74.

羅萬基,「朱子與丁茶山學. 中庸詮釋與基督教之比較」, 대만사범대 박사논문, 중화민국 77.

李楠永,「丁茶山之考證學基礎 - 淸代研究方法對韓國之影響」, 中朝文化關系學術研討會要旨, 臺北, 1985.

장동우,「茶山과 淸代 考證學者와의 관련에 관한 고찰 -『論語古今注』를 중심으로」,『연세철학』6, 연세대대학원 철학과, 1994.

今村與志雄,「丁若鏞과 日本의 儒學者」,『三千里』16, 三千里社, 1978.

② 黃俊杰,「東亞近世儒學思潮의 新動向 - 戴東原·伊藤仁齊와 丁茶山의 孟學에 대한 解釋 -」,『茶山學報』第六輯, 다산학연구원, 1984.

丁冠之,「戴震, 丁茶山的 實學思想」,『中國哲學』, 1984, 2.

금장태,「戴震의 氣學的 세계관과 茶山의 實學」,『다산실학탐구』, 소학사, 2001.

③ 狩野直喜,『中國哲學史』, 1967, p.574; 青木晦藏,「伊藤仁齊와 戴東原」; 高橋正和,「孟子字義疏證과 語孟字義」.

이 두 철학자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약용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는 전무인 실정이다. 사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中·韓·日 삼국의 유학사상사에 대한 비교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 영역으로서, 세 나라 학계에서는 일찍이 비교사상사적인 시각에서 中·韓·日 삼국의 유학사상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① 대진의 氣學과 정약용의 實學의 근대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제의식과 철학적 특성 및 상이한 철학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두 나라가 근대화로 나아가면서 겪은 사상사적 변화의 방향과 그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대진과 정약용의 원저를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두 사람의 철학사상적 특성 및 근대성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 그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철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동이점을 밝히는 한편 근대성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그들의 철학사상을 조명해 볼 것이다.

비교철학적인 연구는 원칙적으로 어떤 두 철학자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교철학적 연구가 흔히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

---

① 1966년 3월 일본의 阿部吉雄(1905－)교수는 동경대학 문학원에서 행한 퇴직연설에서 "일본학자들은 일본민족 중심론에서 벗어나 비교의 시각에서 中·日·韓의 신유학의 발전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76년 8월 7일, 余英時(1930－)교수는 臺北市 中華文化大樓에서「清代儒學與知識傳統」이란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학자들에게 비교사상사의 시각으로 日·韓· 베트남 등 나라에서의 유학의 발전을 주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